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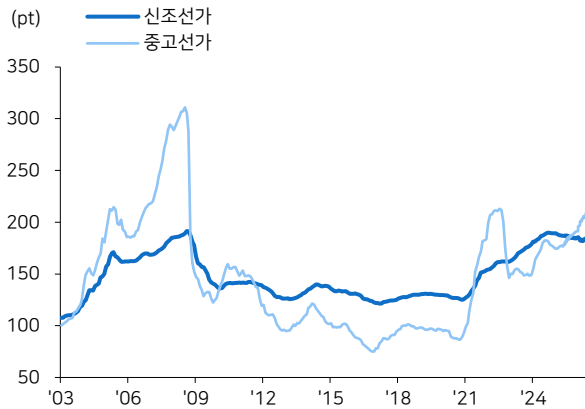


2026. 5. 12 (화)

조선/기계  
Analyst 배기연  
kiyeon.bae@meritz.co.kr

## >>> 국내외 주요 지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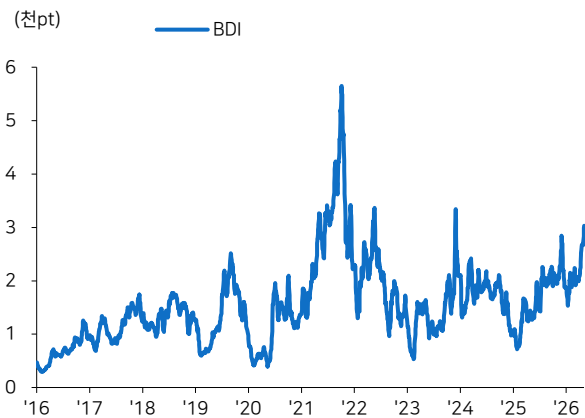
신조선가 184.4p (+0.9p W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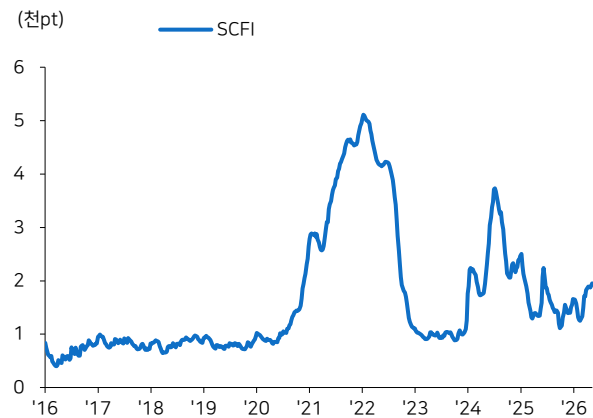
중국 내수 후판가격 526.0달러 (+20.0p W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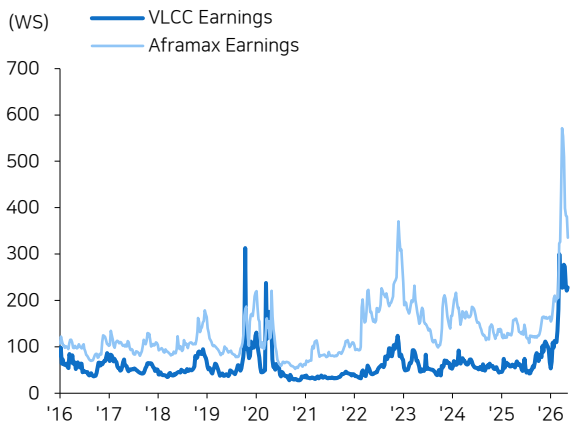
건화물운임(BDI) 2,978.0p (-56.0p Do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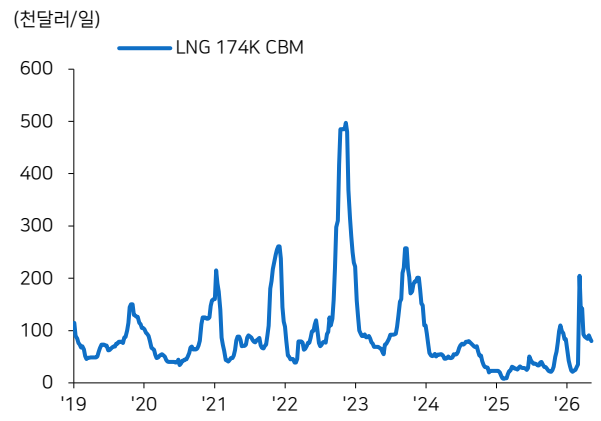
컨테이너운임(SCFI) 1,954.2(+42.8 WoW)



VLCC Spot Rate 227.8WS (+7.0p WoW)



LNG Spot 운임 80.0천달러 (-5.0p WoW)



자료: Clarksons,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 >>>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India's SCI launches tender for four methanol dual-fuel aframax tanker newbuilds (TradeWinds)**

<https://zrr.kr/bWOuRK>

인도 국영 선사인 Shipping Corp of India(SCI)가 자국 조선 산업 육성을 위해 약 3억 달러 규모의 Aframax급 탱커 4척 신조 입찰을 시작했다고 보도됨. 이번 입찰은 메탄올 이중연료 추진선 4척을 대상으로 하며 인도 현지 조선소만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되었으나, 해당 선종 건조 경험이 없는 경우 실적을 보유한 글로벌 조선소와 기술 제휴를 맺는 조건으로 입찰이 가능하다고 전해짐. 이에 따라 인도 조선소와 협력 관계를 맺고 있는 HD현대(Cochin Shipyard 협력)와 삼성중공업(Swan Defence 협력)의 간접 참여가 예상되며, SCI는 이번 탱커 외에도 컨테이너선과 VLGC 등 다양한 선종의 발주를 통해 자국 해운·조선 역량 강화와 에너지 안보 확보를 추진 중이라고 알려짐.

**Ocean Network Express named as buyer behind order for six container ships at HD Hyundai yard (TradeWinds)**

<https://zrr.kr/AU5DgX>

HD현대중공업이 아시아 소재 선사와 체결한 1조 7,787억 원 규모의 컨테이너선 6척 수주 계약의 배후로 싱가포르의 Ocean Network Express(ONE)가 지목되었다고 보도됨. 해당 선박들은 15,900TEU급 LNG 이중연료 추진선으로 척당 가격은 약 2억 300만 달러이며, 울산 조선소에서 건조되어 2029년 하반기까지 순차적으로 인도될 예정으로 전해짐. ONE은 당초 최대 22척의 대규모 발주를 검토했으나 중동 정세 불안과 연료비 상승에 따른 수익성 저하 우려로 인해 발주 규모를 6척으로 축소하며 보수적인 확장 전략을 택했다고 알려짐.

**Knutsen named as owner behind a single LNG newbuilding at Hanwha Ocean (TradeWinds)**

<https://zrr.kr/CHyPwK>

노르웨이 Knutsen OAS Shipping이 한화오션에 약 3,632억 원 규모의 LNG 운반선 1척을 추가 발주했다고 보도됨. 한화오션은 지난 11일 유럽 소재 선사와 2029년 6월 인도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으며, 업계에서는 해당 선사를 지난해 한화오션에 LNG선 7척을 발주했던 Knutsen OAS로 보고 있다고 전해짐. 이번 수주는 Knutsen 측이 보유했던 옵션 물량이 행사됐다고 추정되며, 한화오션은 이번 계약을 포함해 올해 현재까지 LNG선 5척, VLCC 10척 등 총 19척의 수주 실적을 기록 중이라고 알려짐.

**HD 현대, 튀르키에서 VLGC 추가 수주 기대감 (더구루)**

<https://zrr.kr/bE1eTW>

HD현대가 튀르키예 Ciner Shipping와 VLGC 4척에 대한 건조 협상을 추진 중이라고 보도됨. Ciner Shipping은 벌크선 주력에서 가스선 분야로 사업 다각화를 시도하며 과거 벌크선과 유조선 발주를 통해 신뢰를 쌓은 HD현대를 유력한 파트너로 검토하고 있으며, 최대 10척의 가스운반선 확보를 계획하고 있다고 전해짐. 미국산 LPG 수출 확대와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용선료 상승으로 VLGC 발주 수요가 지속되는 가운데, 올해만 10척 이상의 VLGC를 수주한 HD현대의 시장 점유율이 이번 협상에서도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전해짐.

**캐나다 "한화오션-TKMS, 잠수함 최종 제안서 훨씬 강력해져" (아이뉴스 24)**

<https://zrr.kr/DHRZlz>

캐나다 정부가 한화오션과 독일 TKMS의 잠수함 사업 최종 제안서에 대해 훨씬 강력해졌다는 평가를 내렸다고 보도됨. 앞서 캐나다 정부는 지난 3월 초 제출된 제안서가 캐나다 경제에 대한 파급효과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입찰 기간을 8주 연장한 바 있으며, 한화오션과 TKMS는 두 달 사이 철강, 엔지니어링, 방산, 인공지능 등의 분야에서 각각 10여 건, 4건의 새 협약을 체결했다고 전해짐. 캐나다 정부는 올해 안 사업자 선정은 목표로 하고 있으며, 한화오션은 한국 정부의 지원을 바탕으로 현지화 중심의 패키지를 제안하여 2026년 상반기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확보를 노리고 있다고 알려짐.

**한화오션 'OTC 2026' 참가...글로벌 해양플랜트 수주 시동 (더구루)**

<https://zrr.kr/xBkiBW>

한화오션이 미국 휴스턴에서 열린 세계 최대 해양 에너지 박람회 'OTC 2026'에 참가해 NOV, 커먼웰스 등 글로벌 에너지 기업들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보도됨. 회사는 브라질 에너지 미팅을 후원하며 현지 정·재계 인사들과 네트워킹을 강화하는 한편, 최근 인수한 한화오프쇼어 싱가포르와 에너지 플랜트 유닛(EPU)을 중심으로 글로벌 해양플랜트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전해짐. 특히 FPSO 원격제어 기술 고도화와 현지 법인 활용을 통해 인도와 브라질 등 고성장 시장에서 수주를 추진 중이며, 2027년부터 2년마다 FPSO 3기를 건조하는 체계를 구축해 사업 규모를 대폭 확장할 계획으로 알려짐.

### Compliance Notice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될 수 없습니다.